

## KOTRA 장춘무역관 이성호 관장 :

## 길림성 - 한국 기업간 교류와 성장 적극 뒷받침

6월 중순, 길림성 상무청, 무역촉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길림성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방한에서 상호 투자, 무역 활성화, 기업간 교류 확대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장춘무역관 등의 조직하에 양측 기업간 약 1억원 규모의 협약이 체결되어 주목받고 있다.

25일, 기자 일행은 길림성-한국 경제 교류의 플랫폼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장춘무역관 이성호 관장을 찾아 두 지역간 최근 성과, 산업 잠재력, 중소기업 교류 현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 KOTRA는 전세계 84개 국가(지역)에 129개의 해외무역관을 두고 있으며 특히 중국에는 21개의 무역관을 설립, 이중 KOTRA 장춘무역관은 2019년에 설립되었다.

근 몇년간 KOTRA 장춘무역관은 길림성과 한국의 경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주요 업무로 무역지원, 투자지원, 시장 조사연구, 전시회 참가 추진 등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중 무역지원 면에서는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간의 1:1 상담 등 다양한 행사를 조직하여 중한 기업의 협력과 연결을 돕고 투자지원 면에서는 중국 기업에 한국 투자를 위한 원스톱(一站式) 서비스를, 한국 기업에는 투자 환경과 중국 내 운영 등의 정보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 ■ 중한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적극 지원

2025년 상반기, KOTRA 장춘무역관은 적극적인 국제 비즈니스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 총 10여개 행사에 참여하면서 중한 기업의 성장을 도왔다.

3월에는 장춘시무역촉진회와 협력하여 10개 우수 기업을 이끌고 서울에서 개최된 'KIMES 국제의료기기 병원설비전시회'에 참가, 전시회를 통해 길림성 기업과 한국 기업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2025년 개최 예정인 '장춘국제의약품박람회'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였다.

4월에는 '제5회 중한(장춘) 차세대 모빌리티 협력 플라자'를 개최, 이 행사에는 제일자동차그룹을 비롯한 26개 중국 기업과 33개 한국 신에너지 및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해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 기간에 기업간 약 2,500만 달러 규모의 94개 상담이 진행되어 양국간 새로운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마련했다.

6월에는 길림성상무청과 공동으로 21개 길림성 식품기업을 이끌고 서울국제식품전시회에 참가, 총 1억원 규모의 수출 협약이 체결되어 길림성 우수 제품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지원하였다.



▲ '제5회 중한(장춘) 차세대 모빌리티 협력 플라자'에서

## ■ 길림성 유망 산업별 중한 협력 기회

이성호 관장은 "길림성은 제일자동차그룹이 위치한 지역으로 중국 주요 자동차 생산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어 혁신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인삼, 송이버섯 등 풍부한 지역 특산품 자원과 장백산 관광 등은 미래 성장 면에서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 특히 빙설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길림성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경제 및 무역 협력 교류의 주요 장점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그는 길림성의 경제 발전 전략에 기반하여 급후 길림성 유망 산업별 중한



▲ 상품 소개를 하고 있는 KOTRA 장춘무역관 이성호 관장

기업간 협력 기회에 대해 자동차, 소비재, 의료기기 등 3개 핵심 분야로 그 전략적 접근을 소개했다.

자동차산업 분야에서는 산업구조 전환과 경제성장을 위한 혁신적 접근을 강조, 차세대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양국의 정책 지원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대표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

소비재 분야에서는 변화하는 소비트렌드에 주목했다. '고품질·가성비' 소비문화에 맞춰 창고형 마트, 특가마트 등 새로운 유통 채널 협력에 대해 제의했고 더불어 스포츠 플레트름,

디지털 마케팅, O2O 융합 마케팅 등 혁신적인 마케팅 전략 개발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60후(60后)'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품 개발에 집중하며 치과 기자재, 재활의료기기, 의료미용, 건강기능식품 등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외 친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도 밝혔는데 수소에너지, 조선 등 유망 친환경산업 분야의 고부가가치 기술 협력을 통해 중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 ■ 길림성-한국간 경제협력의 새 지평 열어갈 터

이러한 전략적 접근 아래 KOTRA 장춘무역관은 하반기에 장춘에서 개최 예정인 아래와 같은 주요 전시회 참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면서 중한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계획이다.

8월말 개최 예정인 '중국장춘동북아박람회'에 주목,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의 핵심 플랫폼인 이 박람회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국제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혁신적인 교류의 장을 마련해 주려고 준비중이다.

9월에는 '길림성 한국문화상품관 축전'을 주최해 한국 문화와 상품의 매력을 중국 시장에 알릴 계획이다. 이 행사는 단순한 상품 전시를 넘어 양국간 문화적 이해와 경제적 교류를 증진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월에 개최되는 '중국장춘국제의료 건강산업전시회'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양국간 의료산업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성호 관장은 "이런 전시회들은 길림성과 한국 기업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KOTRA 장춘무역관은 한국 기업들의 성공적인 중국 진출을 위해 전시회 조직과 마케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김명준 취화 기자

‘중·일·한 경제협력 세미나’  
경제 및 지방정부 우호 협력 논의

▲ '중·일·한 경제협력 세미나' 및 '국제우호도시 원탁회의'에 참석한 3국 대표 기업사진 / 신화통신

'중·일·한 경제협력 세미나' 및 '국제우호도시 원탁회의'가 6월 17일 호북성 무한시에서 진행되었다. 중국, 일본, 한국에서 온 약 150명의 정부·연구원·대학·기업 대표가 참석해 경제협력 심화와 지방정부 우호 협력 증진에 대해 심도 있는 교류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 중·일·한 3국협력사무국(TCS)은 <2025 중·일·한 경제보고>를 발표했다.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중·일·한 3국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은 24조 2,100억 달러로 세계 총 GDP의 24.1%를 차지했다. 3국의 수출입 총액은 전 세계의 18.8%인 8조 9,300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그중 3국간 수출입 총액은 7,370억 달러에 달했다.

"이들 수치는 우리 경제체의 규모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상호 의존의 깊이와 공동 책임의 무게를 보여준다." TCS 사무총장 이희섭은 현재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날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글로벌 도전에 맞서기 위해 3국이 과학기술혁신, 공급사슬 유연성, 디지털 경제, 녹색 전환 등 핵심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높은 표준, 상호 이익과 윈윈의 중·일·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중·일·한 3국 협력 메커니즘이 가동된 지 26주년이 되는 해이다. 호북성외사판공실 주임 장소매는 호북성은 일본, 한국과 오랜 우

정을 이어왔고 인적 왕래가 활발하며 실무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일본과 한국은 각각 호북성의 제3대, 제7대 무역 파트너로 되었으며 올해 로동절 연휴 기간 한국은 호북성의 10대 관광 류입국중 하나로 되었다고 소개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북경사무소 부소장 모리나가 마사히로는 인터뷰를 통해 3국 협력은 지역 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는 이번 회의는 정부, 학계, 기업의 미래 협력 방향 논의에 핵심적인 플랫폼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국이 시장 개방, 산업사슬 매칭 등 영역에서 구체적인 협력 루트를 형성해 동아시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함께 다져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중국사무소 소장 김응수는 지난 2023년 12월 기준 양국 지방정부가 맺은 우호도시 및 우호협력관계도시는 이미 690쌍에 달한다며 이는 한국 지방정부와 기타 국가 지방정부간 체결한 전체 국제우호도시 및 우호협력관계도시의 36%를 차지한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 지방정부가 행정·문화·예술·경제 등 다수 영역에서 활발한 교류를 전개함에 따라 양국의 지역 경제 발전과 협력도 지속적으로 촉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 신화넷

## ‘중한 전통음악의 교감’ 워크숍 서울서



▲ 서울중국문화센터에서 열린 '고산류수: 전통음악의 교감' 워크숍에서 중한 예술가 8명이 합주를 하고 있다. / 주한 중국문화원

6월 10일 첫번째 유엔 '국제 문명 대화의 날'을 기념하여 '고산류수: 전통음악의 교감' 워크숍이 일전 주한 중국문화원에서 막을 올렸다. 중국과 한국의 전통음악 예술가 8명이 음울을 매개로 현장 토론 교류와 연주 시간 가지며 문화간 소통의 다리로서의 음악의 독특한 매력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중국대외문화교류협회가 주최하고 주한 중국문화원이 주관했다. 예술가들은 각각 중국의 고쟁(古箏)·비파(琵琶)·얼후(二胡)·피리(笛子)와 한국의 가야금·해금·대금·장고 등 양국의 대표 전통민속악기를 소개했다.

워크숍 교류 세션에서 예술가들은 '각자의 악기를 통해 다양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며 각자 연주중에 느꼈던 음악적 정서, 문화적 이미지, 인문 정신에 대한 이해를 공유했다. / 신화넷

끝으로 8명의 예술가들은 한국 음악 <비익연리(比翼连理)>를 합주했다.

한국 가야금 연주자 이수진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중국의 전통악기는 비슷한 면이 있지만 각자의 특징을 담은 또 다른 유색을 지니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마지막 합주를 통해 서로 화합을 이뤄내면서 '음악은 정말로 사람을 하나가 되게 해주는 매개체이다.'라는 사실을 깊이 느낄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다.

주한 중국문화원 부주임 류요홍은 "지음(知音)이란 단순히 음악에 대한 이해를 넘어 마음 깊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언어를 초월한 이해와 공감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행사가 음표를 매개로, 선율을 다리로 중한 문화 예술계 사이의 유익한 교류를 추진하고 양국 민간 우의를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신화넷

## 길림성 기업, 서울국제식품전시회에서 1억원 규모 협약 체결

일전, 한국을 대표하는 식품 전시회인 '2025 서울국제식품전시회 수출상담회'가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개최된 가운데 길림성 기업과 한국 기업은 약 1억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길림성상무청과 KOTRA 장춘무역관의 공동 조직하에 길림성 21개 우수 기업들이 이번 전시회에 참가하여 '길림관'을 구성하였다. 특히 한국에 이미 수출중인 명태, 옥수수곡수, 조선족 특색 식품과 함께 지난해 참가후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한식 밀키트 기업들도 참가해 해외 고객 발굴에 적극 나서며 글로벌 시장에 우수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대의 특색 제품들을 소개했다.

또한 길림성 유명 유통 기업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 연변통마트(延边隆玛特), K-goods(可利购), 청도전문(青岛全门) 등 기업과 한국의 48개 우수 기업들이 참가했다.

설명회에서는 길림성의 동향, 중국 시장 진출 전략, 기업 구매 정책, 수출 통관 절차 등이 소개되었으며 중한 기업간 1:1 맞춤 상담 기회가 제공되



▲ '2025 서울국제식품전시회 수출상담회'에서

었다. 현장에서는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분야 총 41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

한국 기업들은 "이번 설명회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교류의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한국 제품의 중국내 판로 개척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전시회 기간 길림성-한국 기업간 8건의 대표적 무역 프로젝트 협약식이 진행되었다. 길림정대식품회사(吉林正大食品公司), 백성시길림농업회사(白城市吉林农业公司), 백성시룡성실업회사(白城市隆盛实业公司), 둔화시장유식품회사(敦化市市长有食品公司), 연변노회과학기술유한회사

(延边诺喜科技有限公司), 연변호지미수산품회사(延边好之味水产品公司), 연변주제수출입무역유한책임회사(延边洲际进出口贸易有限责任公司) 등 기업들이 참여해 총 1억원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는 45개국 1,639개 식품기업들이 참여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수출상담회에 참가한 해외 구매자들도 지난해 250개 기업에서 300개 기업으로 20% 증가했다. '2025 서울국제식품전시회 수출상담회'는 글로벌 식품산업의 중요한 행사로 1983년 첫 개최 이래 올해로 43회를 맞이하였는바 상해, 방콕, 도쿄에 이어 아시아 4대 식품전시회로 성장했다.

KOTRA 장춘무역관은 길림성상무청과 협의하여 2026년에는 30개 규모의 길림성 우수 식품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며 서울국제식품전시회를 활용해 길림성의 우수한 농업식품이 한국을 비롯해 새로운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명준기자, KOTRA 장춘무역관